

월간 충현

기도의달
3·4
1984



기도에는 방학이 없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허리를 전후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의 형태를 한 가지만 고집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돼' 그러지 말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당한 형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는 위급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고 내가 잘못 될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참된 기도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로만 이루어진다.

기도는 반드시 깨어서 해야 한다. 병든 병아리처럼 졸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고 하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 보다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기도하는 정신으로 임하라는 뜻이다.

학교에는 방학이 있지만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폐와 심장에는 방학이 있을 수 없듯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편 중의 하나인 기도에도 방학을 하고 쉬면 안된다. 하필 특별기도만 기도로 생각하는가? 그러면 심호흡만 호흡하고 일상호흡은 호흡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므로 기도는 호흡처럼 꿈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므로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

가을에 감장을 해서 땅에 파 묻은 다음에는 잔디 가랭이에 눈이 폭 덮이도록 오는 것이 좋다. 그런데 철없는 새색시가 조급해서 김치독 뚜껑을 자주 열어보면 김이 샌다. 김치가 익도록 폭 덮어 두었다가 겨울이 깊어진 때에, 빗자루로 열고 김치 한 포기를 꺼내서 먹어보면 국물이 시원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것이 맛이 난다.

설교가 꼭 이와 같다. 목회자는 월요일이 지나 화요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기 시작해서 목요일 쯤이면 원고가 정리되어 금요일은 기도하면서 다듬고, 토요일은 익히는 날이다. 이날에 교인들이 목사님을 면회한다고 들락날락하면 설교에 김이 빠지게 된다. 설교자는 자기의 설교 노트를 누가 뒤져 보아도 싫어한다. 폭 덮어 두었다가 주일 아침에 강단에 올라가 뚜껑을 열어 사면팔방에서 모여든 성도에게 나누어 먹이면 교인은 물론 설교자 자신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설교자는 짐을 풀 것 같이 시원하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가 더욱 은혜스럽도록 위하여 하루에 두번 이상씩 전 교인이 기도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입을 넓게 여시어 그 준비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교인이 천명선이 넘어가면 교수, 장관, 사장, 회장, 장군들이 예배당 의자에 나와 앉아 있게 된다. 이 때에 설교자가 위축이 되면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에게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한다.

(주간)

1984/3·4 차례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2권 제3호 통권119호

- | | | | |
|-----------|---|-----------|--|
| 2 | 권두언 / 이 성근
기도에는 방학이 없다 | 26 | 찬송가 해설 / 김 영준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있으니 |
| 4 | 이달의 말씀 / 김 창인
성도를 위한 교역자의 기도 | 27 | 신앙수필 / 백 도선
기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
| 6 | 3월의 주제 - 기도 / 박 윤선
기도자의 마음 자세 | 28 | 독자의 시 / 최 경파
사랑하는 아이에게 |
| 8 | 특집좌담 / 장정일·김기정·최석주
한경일·이두란
새성전 시대를 연다 | 29 | 해외에서 온 편지 / 엘리야 젤간
모든 어려움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
| 15 | 정상우 목사와의 대담 / 이 형수 | 31 | 해외선교 소식 |
| 17 | 새성전 이전 특집 화보
충현교회 모습의 어제와 오늘 | 33 | 교우동정 |
| 24 | 교회건물 배치 및 층별 안내 | 35 | 충현교회 제4대 안수집사 |
| 25 | 칼럼 / 김 종주
제자 낳는 길을 간다 | | |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믿음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성도를 위한 교역자의 기도

사 람은 길을 가는 나그네로서 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방황하다 보니까 앞에는 무서운 구렁텅이요 옆에는 하늘에 닿은 듯한 절벽입니다. 더 갈 수가 없어 오던 길을 되돌아 보니 무서운 짐승이 입을 벌리고 달려온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역자는 교인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 교인의 육신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 첫째로, 사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충현교회 1,500세대는 사업의 길을 환하게 열어 공장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입혀주며 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식구와 자녀들에게 필요한 비용이 모자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당 짓는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의 길이 환하게 열리면 좋겠습니다.

• 둘째로, 젊은이들의 공부하는 길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혹은 외국에 유학 등 공부하는 모든 길이 환하게 열리면 좋겠습

니다.

공부하는 데는 네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머리가 똑똑해야 하고, 둘째는 몸이 건강해야 하고, 셋째는 나라가 평안해야 하고, 넷째는 물질적인 후원이 넉넉해야 합니다.

머리가 둔하면 공부를 못합니다. 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몸에 병이 들면 공부를 못합니다. 또한 평화스러운 때에 몸이 튼튼하고 머리가 좋아도 경제적인 후원이 끊어지면 공부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원컨대 충현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머리를 주시고, 몸을 튼튼하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물질도 넉넉히 주셔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진학의 길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 영적인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 첫째로, 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눈을 감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을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입을 열면 감사찬송이 울려나와 영혼의 앞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 둘째로, 교회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교회는 인간적으로 잘난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우리 길을 너희에게 로 직행하게 하옵시며』(살전3:11)

도 없고, 돈 있는 자도 없고, 훌륭한 자도 별로 없었으나 하나님은 빌라델비아교회 성도들의 충성심을 사랑 하셔서 열린 문을 세워 주셨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3:8) 빌라델비아교회 앞에 열린 문을 세워 놓으니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였습니다. 원컨대 총현 교회에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째로, 영혼이 천국가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늘 가는 영광의 길이 열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앞길이 꼭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앞길이 막히니 안타깝습니다. 공부를 하려니 공부하는 길이 막힙니다. 이민을 가려고 하니 그 길이 막힙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길이 막힙니다. 모조리 막히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앞길이 막히면, 네가지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 첫째,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길도 막히고, 이민가는 길도 막히고 사업하는 길이 막히게 될때에는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 원망이 나옵니다.

• 둘째, 낙심을 합니다

• 세째, 죄와 타협을 합니다

'너, 내 말대로 이렇게 해'

'그래, 그래' 낙심한 사람은 죄와 타협을 합니다.

네째, 인간의 불의한 방법을 씁니다.

마귀와 타협한 후에는 인간의 방법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사람이야 죽겠으면 죽고, 나라야 망하겠으면 망하고, 교회야 깨지겠으면 깨져라. 내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다. 인간의 불의한 방법을 써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넣어 팔아 먹습니다. 가짜 약, 가짜 시계를 팔아 먹는 인간의 방법을 써서라도 사는 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는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막아 버리고 도리어 지옥의 함정을 파서 천길, 만길 한 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길이 막힐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했던 것 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는 출렁거리는 홍해, 뒤에는 세계적인 정예군 애굽 마법의 고함소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 때에 백성은 '모세야,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더냐?'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사람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길은 막혔고, 원수는 뒤를 바짝 따릅니다. 백성은 격려하기는 커녕 원망만 합니다. 또한 내게는 지팡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만한 다리나 배도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여쭙하렵니까?' 고요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의 연약을 아는 겸손이요, 자기의 부족을 아는 회개입니다. 모세는 겸손과 회개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겸손하고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능이면 살겠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렸더니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 있지?'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에 쪼고 다니던 지팡이 입니다.'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홍해로 내밀어라.'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웬 일입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가려 했으나 이스라엘의 앞에는 불기둥이 있고, 뒤에는 구름기둥이 있어 애굽군을 가로 막아 원수들을 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간 후에야 애굽군이 따라 건너갑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다시 들어 홍해로 내밀어라.' 애굽군은 수장되었고, 위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 쉽고, 다리를 놓는 것보다 쉽고, 배를 타고 건너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막혔던 앞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의 앞길이 열 번 가로 막히는 경우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죄악과 타협하지 맙시다.

이미 범한 죄악을 회개하며, 나의 부족을 알아 겸손히 또 조심스럽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앞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도의 앞길에는 성공의 길이 열리고 악마와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기도자의 마음 자세

성경 / 약1:2-8

박윤선 목사
(합동신학원장)

기도자는 그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

1.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 (5절 상반).

이 본문에서 말씀한 “지혜”는 다르다. 그것은 본문 5절의 “부족하거든”이란 어귀와 4절의 “부족함이 없게란 어귀가 나란히 언급되면서 5절의 “부족”이란 말이 4절의 “부족”이란 말을 받아서 나온 것을 보아 알려진다. 즉, 4절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란 말씀은 참는 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5절의 말씀은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 잘 참는 것이 신자의 지혜이므로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한 것이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서 “성결”과 “화평”을 유지하게 한다. 약 3:17 참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 거룩하여지도록 섭리하신다. 그는 우리의 육신의 형편보다 영혼의 상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것이 추상적이 아닌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어 참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2.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 (5절 하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기도자에게 후히 주시는 이 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후히주시는 아

버지이시다. 그가 우리를 기도로 응답하시는 방법은 오묘하여 우리로서 알기 어려운 방면도 있다.

(1) 하나님은 이적보다 평범한 섭리적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이 많다. 하나님은 새 신자의 신앙 발생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신자의 장성을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신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본위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적을 일으키시려고 역 사하신다. 핏필드는 잘 믿어보려고 “거룩한 모임” (Holy Club)이란 단체에 들어가서 규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허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때로는 울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마를 마루에 대고 엎드려 오랫동안 탄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런데 그의 심령의 그같은 형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후에 그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벗어 놓은 듯 시원함과 샘솟듯 하는 기쁨이 넘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간증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허전함과 피로움이 깃들도록 간섭하시는 때도 있다.

(3)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때도 있으며, 그는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므로 기도 응답 인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 그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며, 그의 행사는 기이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내용도 있다.

(4)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즉, 그가 우리의 처지에 손을 대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고로



그런 때에는 우리가 그의 친절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우리의 참된 유익을 아시므로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해로운 것도 모르고 요구하나 부모는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세심히 살피며 돌아본다. 어린아이는 해로운 것도 모르고 요구하나 부모는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세심히 살피며 돌아본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3.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6~8).

우리 신자들에게는 의심이 없어야 된다. 의심은 믿음의 원수인데 우리가 원수를 집에 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현실 중에도 현실이시다. 그는 우리가 들어가는 무덤에까지 들어오셨다.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그를 믿는다.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한다. 즉,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안 믿어도 나는 믿겠다. 내가 안 믿어도 나는 믿겠다.” 즉,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의 악한 사상이 성경을 안 믿으려 해도 나의 증생한 영혼(참되고 의로운 사상)은 성경을 받아 들인다는 의미이다.

나의 기도

글/박 윤선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어 주님을 믿는 데
힘을 얻게 하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였오니(엡 5 : 8)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주에 가득차고도 남을
큰 믿음을 가져야 마땅한 줄 아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으심이 모든 착함이고(요 3 : 16)
우리 죄를 거저 사하지 않으시고
독생자의 피로 댓가를 내시고 하셨아오니
모든 의로움이시고(롬 3 : 25-26)
그의 죽으심은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루신
것이오니(고후 1 : 19-20)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이니이다
주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착함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
맡기 원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맡기 원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실함에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맡기고 맡기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새성전시대를 연다”

- ...1953년 9월 6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중구 장충동 한모퉁이에서 ...□
-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 18명이 주 ...□
- ...님의 뜻을 따라 중현의 문을 연지 만 30년 6개월 10일이 되는 1984년 ...□
- ...4월 16일 중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새성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새 ...□
- ...성전의 시대를 열었다. ...□
- ...처음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문을 열던 때와는 달리 하루가 다르게 변 ...□
- ...모해 가는 한국제일의 신흥지역에서 다시금 제2의 중현의 시대가 시 ...□
- ...작되게 된 것은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 ...□
- ...함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
- ...이 시대의 중현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천국일꾼을 양성하여 민족을 ...□
- ...복음화 하되 저 멀리 북한까지도 복음화 하며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하 ...□
- ...기 위한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새성전시 ...□
- ...대를 연다. ...□

일 시 : 1984년 3월 9일 오후 7시

장 소 : 당회장 실

참석자 : 장 정일 목사 <수석부목사>

김 기정 장로 <건축위원회 위원장>

최 석주 장로 <기획조정실장>

한 경일 장로 <세계선교회 회장>

이 두란 전도사 <9 교구 여교역자>

사 회 : 김 광신 장로 <홍보출판부장>

사회자 : 저희 교회는 지난해에 교회 설립 30주년을 보냈고 금년에 31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성년이 된 해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성전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새 시대를 새성전에서 열게 된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중현의 내일을 조명해 보고, 모든 성도가 새역사의 대열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좌담을 서너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교회가 큰교회로 발돋움했는데 큰교회의 의의나 사명, 필요성에 대하여, 둘째 이 큰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어떠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현재 있는 성전과 새성전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좌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건축 일로 노심초사하신 건축위원장 김 기정 장로님께서 새성전 시대의 개막을 선언해 주시지요.

김 기정 : 개막 선언은 좀 거창한 것 같고 하여 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설립 10주년을 맞이 하면서 새성전 건축의 결의를 하고, 2년 후에 대지물색,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격다가 80년도에 새성전건축 허가가 나오므로 1960년대부터 준비해 오던 새성전의 꿈이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그것도 부활주일인 4월22일에 새성전으로 올라가게 됨에 이제 부터 새성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사회자 :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가 주로 개교회 중심의 방향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성전 시대에 들어 가면서 개교회이지마는 모든 별에서 차원이 다른 대형교회랄까 하는 입장에서 의 사명이 훨씬 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큰 교회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지요.

최 석주 : 우리 교회가 설립한지 30년이 되었고 이제 새성전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개발 이다' '군대화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개발이라는 말에는 강제 성장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군대화라는 것은 사회적 변동에 따라 발전을 뜻하면서 성장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에 필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조직이나 모든 기능 문화적 변화인데 그 변화 방법이 소위 기계화 분업화 도시화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대형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자꾸 중공업으로 늘어나고 대기업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발달에 따라서 개인의 살림도 그런면으로 익숙하



장 정일 목사

게 성장한다고 봅니다. 사회의 이런 변천이 교회의 변천을 요구하게 되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교회가 주의할 점은 큰 교회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국가, 사회에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하나의 사명적인 것으로 바뀌질 때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사명도 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대로 정말 감사하는 교회로, 또 순결한 교회로, 활동하는 교회로, 소망이 있는 교회로 자라가며 정말 우리가 커지는 보람은 느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장 정일 : 최장로님께서 대형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대형교회라고 할때 우선적으로 교회성장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봅니다. 교회성장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성장을, 내적성장과 외적성장 다시 말해서 질적 성장과 양적성장 그리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타지역, 타문화권에 개척교회를 세우거나 모든 선교활동을 하는 연장성장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라 할때에 특별히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인수, 건물, 봉식자, 교역자의 수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대형교회의 특징을 생각할 때 정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동적인 교회이며 활동범위로 보면 세계성을 띄게 되며 봉사영역으로 볼때에는 지역봉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각 영역 다시 말해서 자기 교회의 부흥과는 관계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대형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한 경일 : 두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적으로는 감사, 순결, 소망, 활동 하는 교회로 깊어지고 외적으로는 정말 큰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개척적인 면에서 해 나가는 일이 있을 때 명실공히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참 사명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고 말겠지요.

사회자 :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때 우리교회가 과연 큰 교회에 속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물론 외적 면에서도 그런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새성전 시대가 열리고 또한 보다 큰 비전과 일을 행해 나가야 하는 일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미리 생각하며 준비한다는데 큰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자리도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사명이나 임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이 두란 : 흔히 큰 교회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의 책임의 일부를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평일에 교회당을 결 혼식장으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대 사회의 봉사라고 할 때 그런 측면, 즉 일반 사회단체와 별 다른없는 그런 봉사가 아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 봉사를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최 석주 : 특별히 큰 교회 사명중 교육에 관한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일꾼 키우는 교육,



김 기정 장로

지도자 양성 교육등을 큰 교회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중 하나가 「천국일꾼을 키우자」인데, 1963년 교회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에 제직중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한명 뿐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김목사님께 말씀 드렸더니 목사님도 깜짝 놀라며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목표를 정하고 그 방면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에 우리 교회는 주교 교육면에서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앞섰다고 봅니다. 특히 주교행정, 교사훈련, 보수교육, 공과제작등 많은 다른 교회에 영향을 준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앞으로 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교회에서 적용해 나가서 성과를 거두면 당연히 다른 교회에 파급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경일 : 선교 측면에서도 그런 면은 많다고 봅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재정 지원 정도로 그치겠지만 큰 교회에서는 우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면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외국 선교기관과 유대 관계를 맺어 보다 원활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는 작은 교회에 선교를 위한 조언 및 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량역할도 가능한 일입니다. 즉 큰 교회는 모든 분야에서 세분되고 전문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 기정 : 큰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겁고 범위에 있어서도 무척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큰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 교회연합운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장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주일학교 연합회 운동이 대단히 활발해서 우리 교회도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연합사업이 많이 생겼고 따라서 좋지못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교회가 연합운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마는 이제 새성전 시대에 큰 교회의 위치에 있을 때는 지금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로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살피서 다른 교회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본래의 연합운동의 의의를 살려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장 정일 : 김장로님께서 교회연합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연합운동을 통해서 본 보일 수 있고 또한 큰 교회는 당연히 다른 작은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힘의 역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 여러교회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항간에서 교회가 너무 대형화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며 작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하며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사회관계, 대불신관계등에서 큰 교회가 갖고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인정하며 격려하고 도와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교회 지도자의 훈련, 평신도를 위한 봉사와 재교육, 또한 세계에 퍼져 있는 교포 교회의 자녀들이나 교역자를 초청하여 훈련하는 일등은 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영적운동, 봉사하는 교회로 할 일이 많습니다.

시회지 : 금년에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으며 1,000만명의 교인으로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대형화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목사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이처럼 교회가 점점 대형화 되어 가는데에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큰 교회들이 필요한지, 그 타당성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최 석주 장로

최 석주 : 큰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어느 개교회
가 원한다고 이루어지고 또 원치 않는다고 안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초대교
회 시대에 다락방에 모여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나
가서 복음을 외칠 때 하루 아침에 3,000명씩 회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매우 큰 무리들이 모
였던 집안이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직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때, 지금 어디에 가든
지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민족복음화운동을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섭
리 가운데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가 볼 때, 이 많
은 숫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적은 교회로는 도
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만 보
아도 주일에 5부예배를 보고 심지어 TV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데, 이런 상
황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리 교회당의 규모로는 예배 드리는 일외에 교육
이나 봉사활동, 친교등은 공간상으로 불가능합니
다. 그러기에 자연적으로 큰 교회당이 필요하고
큰 교회당을 짓게 되니까 힘이 역학이랄까 그런 내
외의 필요에 따라 외부로 힘이 흘러 나가게 되고
그렇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거지요. 이런 면을 내다보고 우리교회
의 5대목표가 우리 교회만의 성장과 발전이 아닌
보다 차원 높게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김목사님이 늘 말씀
하시는대로 병원이나, 학교는 갈수록 커지는데 영
혼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교회가 커지는 것은 당연
하다는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또한 80년대가 가
기전 우리 민족중 80%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할때
이런 큰 교회가 수백개는 생겨나리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런 방향으로
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나기야 한다
고 하셨는데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시요.

장 정일 : 우리교회가 아직 규모면에서는 그야말
로 대형교회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러나 모든 사업내용이나 방향등을 볼때는 충분히
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성



한 경일 장로

전으로 이전하면서 규모면에서도 커지기 때문에 명
실공히 큰 교회로서의 사명감당을 위한 준비가 필
요합니다. 우선 교인들의 질적성장을 위해 계속되
는 교육훈련과 또한 양적으로도 금년 목표인 1,500
구역, 10,000세대를 하루 속히 달성해야 합니다.
이런 목표는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이지 장기적인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라
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 인원이 얼마
나 늘어나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
실자가 있는한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어서 양육시
키고 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라고 봅니다. 그런 일을 우리 교회의 규모로 볼때
10,000세대 정도가 있어야 원활하게 하지 않겠느
냐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멈추지 않
는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 선교, 지교회 설
립, 문서전도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됩니다.
특별히 큰 교회로서 민족 앞에 부단히 봉사하고 헌
신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우리 온 교인들이 인
식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기정 : 교인 수가 많아지면 이들을 이끌고 나
가는 핵심적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적게는 교역
자와 당회원들이 될 수 있지요. 한걸음 더 나아가
제직들이 있는데, 이 제직을 훈련하는 문제가 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안건이
라고 봅니다.

우리교회의 경우 금년도 제직수가 2,000명이 넘
습니다. 게다가 주교교사, 성가대원, 구역 권찰등
을 합치면 2,500여명 선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주
일예배 평균 출석인원을 4,700~4,800명으로 볼
때 절반이상이 직분을 가지고 또는 안 가진 교회



이 두란 전도사

의 봉사자들입니다. 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잘 훈련시켜서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의 자세로 임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성전 시대를 대비하여 교구도 늘리고 조직도 개편하고 했지만 제직들이 효과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목표들을 실현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시키느냐가 문제인데 모아 놓고 강의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생활에서, 어디를 가든지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도록 훈련시켜야 되리라 봅니다. 또한 서로가 합심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로가 각자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한 마음으로 해 나가면 훨씬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최 석주: 이제 30주년을 지나서 새출발을 하는 충현교회가 그동안 선구적역할을 해 온 것만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70년대에는 다른 교회가 여러 분야에서 우리교회로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교회로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교회로서의 선도적역할을 감당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침체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먼저 분석해 보아야 앞날을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는 참다운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신앙적 칼라의 혼합적인 경향과 조직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의 육성부족과 참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바른 교회관이 정립이 안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시작은 크게 해놓고 지속

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우리는 우리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는 충현교회 교인이다. 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아집과 충현제일주의의 자만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대흐름에 대해서도 밝히 보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언제나 철저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조직에 비해서 충현은 현재 너무 비합리적이고 단편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지금까지의 침체를 가져 왔다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봅니다. 그러면 새시대 새성전시대에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냐 생각해 볼 때 새시대상에 새교회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현의 시대적 사명감에 대한 자각과 역할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이것은 지도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교회 목표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수 있는 조화요 또 지속적으로 일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력과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을 적극 교육하고 육성해서 목회자 중심이면서도 온갖 교회활동에는 평신도들이 총동원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와 헌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때, 충현교회가 감당할 시대적 사명과 큰 교회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금 최장로님 말씀 가운데 신앙의 칼라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최근에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 오던 신앙의 칼라랄까 패턴이랄까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 과연 충현교회의 칼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신앙의 특색이나 분위기 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이두란: 60년대의 충현교회는 “보수중에서도 보수”라는 것을 자타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던 분이 서울로 오게 되면 충현교회를 많이 찾았고 또한 추천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 분위기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충현교회에 나와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배를 드리고 돌아 갈 때는 ‘정말 좋은 교회다’는 느낌을 받곤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신앙의 칼라문 제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정일: 원래 우리 교회는 김목사님 자신이 병에서 나음을 입은 체험을 가지신 분이요, 또한 재전과, 고려파등에서 신앙을 쌓은 분이시기에 뜨거우면서도 말씀 중심적인 교회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초반부터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우리교회도 그 물결에 다소 휩쓸렸음을 느낍니다. 성경자체가 기적과 이적,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축복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큰 문제이지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와중에서도 김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투철한 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이 계속해서 주류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교회의 색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석주: 요즈음 우리 교회의 신앙이 좀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더러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시던 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은퇴하시고, 제직들이 바뀌고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교역자들도 변동이 많고 하게 되니까 우선 느낄 때에 신앙적인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각자 자신들이 생각해 오던 스타일로 일하게 되고 그것이 두드러져 나타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충현교회를 특징 짓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목사님이 가지고 있고 강조하는 철저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깨끗한 인격 등 그야

말로 60년대에 동현교회를 특징지우던 그런 요소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요소들은 전부 이런 중심적인 충현교회의 특징들에 수렴하게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들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순수하게 충현교회가 지켜온 신앙과 그 특징들을 살려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경일: 많은 교회가 각기 그 교회 나름대로의 스타일이랄까 특징, 풍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로는 영락교회나 순복음중앙교회는 각기 특색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란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분위기와 특색이 있습니다. 사회참여에 치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지도 않고 말씀을 중심해서 각 개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성숙시키면서 꾸준히 지내온 교회가 충현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최장로님이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온 분들의 일하는 특징이 드러나기에 그런 느낌을 받았을 뿐이지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없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특징을 살려 교회와 민족, 개인에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우리가 새성전으로 가면 교회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교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성전과 현재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기정: 차이라 한다면 우선 건물 크기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가면 다 아시는 바대로 원본당에는 안됩니다. 본당은 2층인데 1층 중강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는 2,000명 정도 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서로 의논하기를 우선 4부예배로 드리자고 했는데 앞으로 대강당이 되면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수용능력은 한번에 정구석은 1,120명인데 아래 위로 입추의 여지없이 꼭 차면 1,6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성전은 통로, 현관, 복도가 매우 넓게 되어 있는데 의자배열이 끝나면 아마 7,000석정도 될 것입니다. 만약 보조의자까지 사용할 정도로 꼭 차면 10,000명은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교교실은 현재는 경아부가 5부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학교는 꼭 차서 교대로 예배드리는데 약 4,000명정도도 사용 인원이 되는데 새성전에는 교육관, 선교센터, 본당



김 광신 장로

지하실등은 다 합치면 한번에 7,000명 정도는 되며 오전·오후로 2번 모인다면 연인원 14,000명 정도로 봅니다. 주차장 시설은 현재는 없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런데 새성전은 지하실 중에서 식당, 창고, 기름탱크, 물 탱크 면적등을 제외하고 350대 정도 주차 가능하고 옥외에 약250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따라서 600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은 지하1층, 2층 합쳐서 한꺼번에 약 1,000명 수용이 됩니다. 도서실은 약300명, 연구실등 필요시설은 모두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경비문제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교인들의 자세를 잘 가져야 하며 그것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가서 느껴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회자 : 부활절 예배를 새성전에서 드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감격스러운 입당예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잘 실감이 안나겠지만 간단히 새성전 입당 했을 때의 기도문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정 : 다 공통된 기도문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째, 새성전 입주 허가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우선 금년 목표인

1,500구역 10,000세대 달성과 둘째로 남은 공사가 무사히 하루 속히 완공되어 헌당예배를 드리도록 해야겠지요.

최석주 : 대표가 되는 김장로님이 다 하셨는데요 (일동 웃음). 앞으로 더욱 온 교회가 다 함께 힘써 후대에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복 받으며 민족을 살리고 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복 받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직분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남녀노소 총동원하여 이 일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빨리 준공되도록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경일 :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또한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두란 : 저도 장로님을 말씀과 같이 첫째 성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둘째 속히 완공하여 헌당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세째 빈 자리를 가득 차게 부흥되도록 하며 더욱이 총현교회는 보수신앙으로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모두 천국 가는 복을 얻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 장시간동안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성전시대를 여는 귀한 일에 온 성도가 동참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총현의 선교사

1984년 2월 현재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서독/육호기 선교사



애굽/이준교 선교사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파라과이/길세창 선교사



절레/유세일 선교사



멜지움/김성완 선교사



일본/유병애 평신도선교사



홍공/이만열 선교사



마카오/염영택 선교사

목사될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 그동안 충현교회 수석부목사로 수고하시던 정상우 목사님이 지난 3월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중현교회의 담임목사로 출국하기에 앞서 27일 정상우 목사님 댁에서 홍보출판부장인 김광신 장로와 편집위원인 이형수 집사가 목사님과 대담을 나누었다.

김 광신 : 출국준비에 바쁘신 중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현교회에 인연을 맺으신 사연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정 상우 : 1970년 10월 대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듬해 2월 충현교회에 왔지요. 저의 목사고시위원이셨던 정문호목사님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때까지 정목사님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몰랐지요. 면접할 때 저를 좋게 보시고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00여명 모이는 시골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충현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하니까 어떻게 떨리는지 혼이 났어요.

그후 후암교회로 갈 때까지 계속 당회장님을 맡아 교회 일을 섬겼고 작년 9월에 다시 지교회인 나성 충현교회에 가기로 하고 충현교회로 돌아왔지요.

이 형수 : 자기 일생의 길을 결정하게 되는 동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되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정 상우 :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신학교가 있는 줄도 몰랐구요. 6.25바로 전에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훈련을 받다가 패륜을 진단당해서 학교를 쉬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늑막염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식당을 지냈지요. 퇴원 10일 후에 6.25가 터져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9.28 수복 때 공군헌병시험에 합격해서 일본에 정보요원 훈련차 갔었지요. 그곳에서 훈련중 신체검사결과 실격을 당해서 한국에 송환되어 한국공군 정보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특권층에 있을 때라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꽤나 나빠졌어요. 결국 공군에서 강제로 제대가 되었고 어머니의 인도로 용문산에 부흥회 참석차 갔었지요. 일주일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지요. 그후 아버님의 사업실패로 취직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고 다녔는데 하루는 제가 나가는 후암제일교회 전도사님이 심방을 오셔서 신학교 가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당회장이신 고봉연 목사님께 노회가 열리고 있는 송동교회에 가서 뜻을 말씀드렸더니 지금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이력서 가지고 왔느냐고 하십니다. 취직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이력서를 드렸더니 즉시 수속을 해주셔서 2교시부터 시험을 보았지요.

다행히 학과시험에는 합격했는데 신체검사는 자신이 없어서 대리시험을 쳐서 들어갔지요.

대리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또 맞았고 그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목사가 되는 길을 열어 주셨지요.

김 광신 : 목사님 가족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 상우 : 우리 집사람과 큰딸, 아들 둘 모두 다섯식구지요.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김 광신 : 대개 목회생활과 가정생활은 균형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가정생활을 점수로 매긴다면 어떤가요?

정 상우 :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주님께 헌신적이어서 그런지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항상 충고를 하지요. 저는 가정생활에 충실치 못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미국 가열 좀 달라지겠지요.

이 형수 :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 목회자로 키울 의도는 있으신지요.

정 상우 : 물론 하나님 뜻이겠지만 큰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요.

김 광신: 목사님은 설교준비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고 강단에 서시는 것으로 아는데 목사님 자신은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정 상우: 제가요. 설교를 하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감을 못 가져요. 카세트를 들어보면 항상 부끄러워요. 그래도 제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김 광신: 목사님의 개인 기도생활은 어떠신지요.

정 상우: 제 기도생활도 부끄럽습니다. 새벽기도 위주로 하는 것 뿐이고 늘 다니면서, 틈나는대로 하지요.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시간이 늘 부족해요.

이 형수: 나성총현교회 현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목회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 상우: 정확히는 모르구요. 현재 장로님 9분, 집사 54명, 안수집사 3명을 포함해서 교인이 150여명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곳에 부임하면 우선 현황 파악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급한 당회조직을 해야겠습니다. 금년 9월쯤 당회장 목사님이 LA에 오시면 장로 취임식을 했으면 해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이 다 총현교회 출신이 아니어서 동질화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겠어요. 또 전도회조직을 하여 전도의 활성화를 기해야겠어요.

김 광신: 목사님이 나성총현교회에 가시게 된 동기와 그 교회의 특수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정 상우: 제가 목회를 시작한 후부터 줄곧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후암교회에 있을때에도 선교에 관한 점을 특별히 강조해서 전교인이 선교회원 되도록 힘썼고 그 비전을 계속 현실화시켰죠. 이번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성총현교회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후암교회에서도 양해를 해 주셨고 저도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나성교회를 주축으로 선교사의 재교육문제, 공산권선교문제, 선교사 후보양성문제등 선교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형수: 지금까지 수석 부목사님으로서 당회장님을 보필하고 목사님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은혜 안에서 이끌어 오셨는데 수석 부목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 상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잘 도와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일을 해 왔지요.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방향에 최대



정 상우 목사

한 협조, 보좌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여론을 말씀드리고 의논을 드렸지요. 건의사항은 목사님이 많이 받아 주셨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김 광신: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공개해 주시지요.

정 상우: 저는 시편 3 : 8을 목회목표로 삼고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도록하는 일꾼에 지나지 않지요.

이 형수: 우리 교회의 금년도 구역 활성화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 상우: 우선 중요한 것은 구역성경공부 시키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이 모임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하면 교구활성화는 된다고 봅니다. 또 교구담당목사님들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구역성경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설교와 성경공부와의 구별을 잘 인식해서 훈련을 다져 나가면 빠른 시일 안에 구역활성화가 정착될 것으로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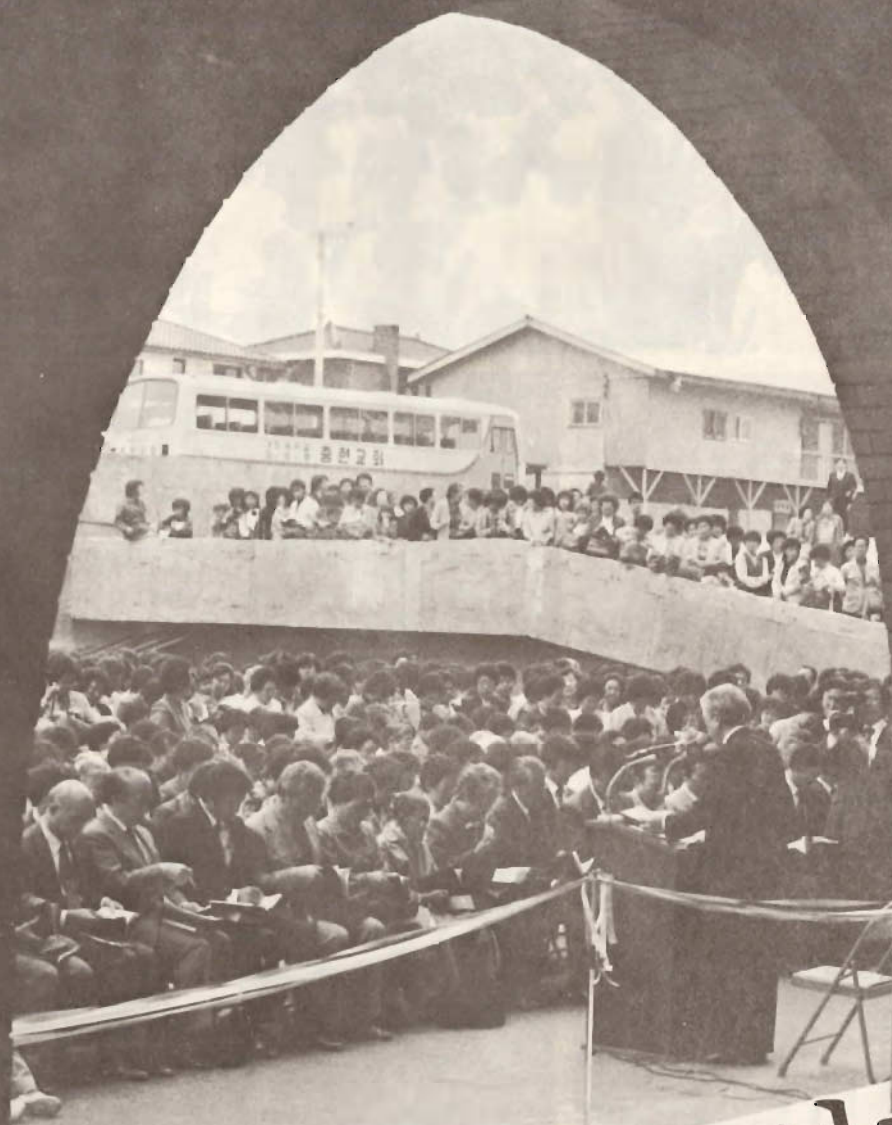
김 광신: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입장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 상우: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일이 우선입니다. 아쉬운 것은 새성전입당을 못 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아쉬워요. 새성전건축에 제 나름대로 많은 관심과 애착이 있었고 기도했는데 새성전 강단에 한번 서보지 못하고 떠나니 정말 아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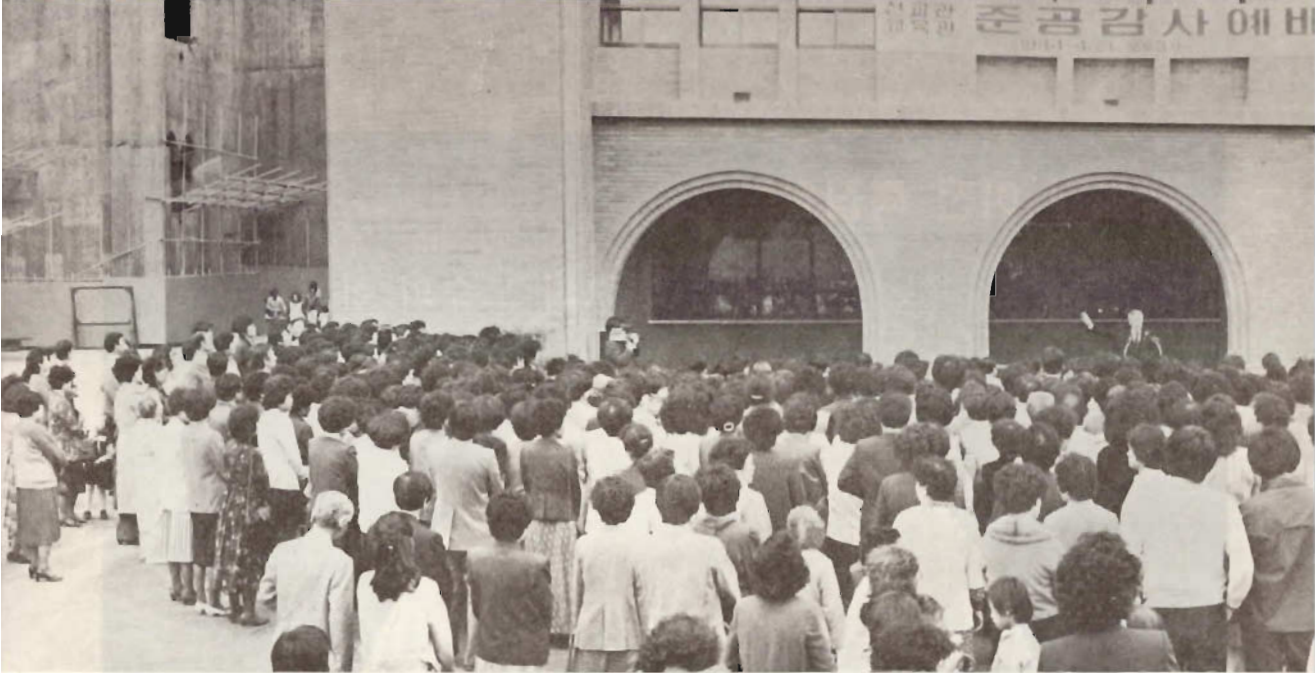
김 광신: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나성에 가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온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아쉬운 작별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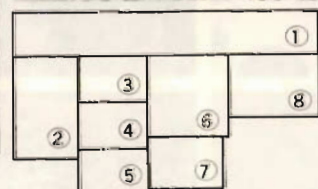
새성전 이전 특집화보

충현교회 모습의 어제와 오늘



“새성전시대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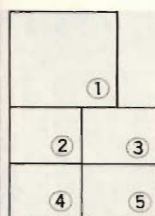


- ① 새성전 선교관, 교육관 준공감사예배 (1984. 4. 21 오후 3 시)
- ② 1953년 9월부터 1984년 4월 16 역삼동 새성전으로 이전하기 까
지 종현성도들의 신앙의 요람이었던 종무로 구성전
- ③ 1954년 9월 종무로 구성전 본당 신축공사중 교회 주변의 정치작
업
- ④ 예나 지금이나 현결같이 성전건축에 헌신적이었던 종현의 성도
들
- ⑤ 신축 공사중인 구성전에서 (1954. 본당 3 층)
- ⑥ 주일낮예배가 끝나 성도들이 구름처럼 밀려 나오던 구성전 주
일의 모습
- ⑦ 구성전 본당 동편으로 별관 (유치부가 있던 곳)을 짓기 전의 모
습
- ⑧ 70년대 초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의 조회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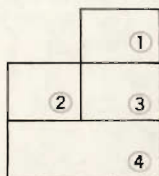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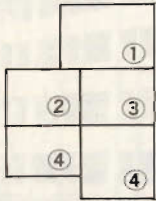


- ① 축복받은 약속의 땅, 새성전 건축부지, 한적한 시골길 같은 느낌마저 든다. (1978. 4)
- ② 새성전 기공예배 (1978. 5. 28)
- ③ 새성전 기공예배 후 교역자들이 첫삽을 떼서 힘껏 던지고 있다. (1978. 5. 28)
- ④ 새성전 지하주차장 기초공사 (1980. 6)
- ⑤ 새성전 본당 골조공사



- ① 새성전 본당 골조 공사 (1981. 11)
- ②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끝난 선교관
- ③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끝난 교육관
- ④ 새성전 전경 (조감도)





- ① 30여년을 하루 같이 말씀을 외치던 구성전의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김창인 목사 (1984. 4. 18)
- ② 마루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구성전에서 마지막 예배
- ③ 구성전에서의 마지막 당회 (임시당회, 1984. 4. 18)
- ④ 교회이전을 위해 성전에 자원하여 봉사하는성도들



①	②
③	④
⑤	

① 대역사의 열매가 익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께서 거하시기를 간구하며 또 축복하는 순간 (1984. 4. 21)

② 감사예배 후 오색 테이프를 끊는 당회장 이하 교구 목사들과 각 위원회 위원장 장로들 (1984. 4. 21)

③ 준공감사 예배가 끝난 후 축하객과 함께 기뻐하는 중현의 성도들

④ 새성전에서서의 첫 임당 예배, 부활주일이기도 했다 (1984. 4. 22)

⑤ 첫 임당예배 광경 (1984. 4. 22 제 2부예배)

교회건물배치 및 층별안내도



5층

4층

3층

2층

1층

B1

- 대예배실
- 예배위원회
- 구역권찰회 (2)

- 집회실
- 성가위원회
- 성가연습실

본 당

- 회의실

- 전도위원회
- 남여전도회
- 의료전도회
- 출현세계선교회

- 당회실 • 당회장실
- 수석부목사실
- 재정위원회
- 자산관리위원회
- 감사위원

- 기획조정실
- 교회자료실
- 교회교육연구소
- 민족복음화연구소
- 세계선교연구소

- 영아부
- 새가정부

선교관

도서실

- 집회실
- 다용도실

- 중등부
- 고등부
- 대학부
- 청년부
- 직장전도교육부

- 초등부
- 소년부
- 중년부
- 장년부
- 세례부

- 교육위원회
- 성경연구원
- 유치부
- 유년부
- 새신자부

- 구역권찰회 (1)
- 소망부
- 북한선교위원회
- 사무국
- 재단법인 출현동산
- 기도원관리위원회

교육관

”제자 낳는 길을 간다”

김 종 주

최근 한국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제자삼는 일과 경건한 그리스도인 육성에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때에 우리교회에서도 금년부터 각 교구의 구역예배와 교사훈련등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구역 성경공부도 실제적인 삶을 다루어 은혜롭고 유익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을 금할 수 없던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신자라면 예배에만 참석하여 설교 듣는 것으로 영적인 갈증을 풀지 못하며 자기의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교회에도 재생산 할 수 있는 제자는 양육하는데 주교교육과 각교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살펴 보아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또 많은 군중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므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셨고 또 열 두 제자에게 초점을 두셨다.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집중적으로 특이하게 자기의 생애를 드렸다. 그 결과 12제자들이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는 모두가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 날에 다 불타고 없어질 유한한 세상의 것에 집중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최후의 지상명령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有가 有를 낳는 자연

의 법칙”과 같이 제자 아닌 사람이 제자를 만들면 자기와 같은 사람 밖에 되지 않아 재생산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그저 낳아지는 것이 아니다” (“Disciples are made not born”)라는 명언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자 삼는 사역은 전도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사람에게 전도하여 몇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 했는지 조용히 점검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제자를 낳는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영적인 석녀(石女)는 아닌가?

운전교습은 속성코스가 있고, 음식도 인스턴트 음식이 있으며 채소에도 속성재배가 있으나 제자 되는 과정은 속성코스가 없다. 또한 제자는 군중에게 일방적인 가르침(Teaching)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1년내내 많은 학생을 공과공부(Bible Study)시간에 준비해 온 성경지식을 전달만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다면 재생산의 비전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교사는 교사끼리 각교구의 구역에서는 구역단위로 성경공부그룹이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 같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세워 주신 목적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인 제자 삼는 재생산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때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새 154장)

김 영 준

(선교 찬양대 지휘)

미국의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담당한 분이 있었는데 청취자들에게 애창하는 찬송가 10편을 적어 보내라고 조사한 적이 있었다. 약 4 만명이 응답한 결과 무려 600편의 찬송가 가운데 최고 득점의 찬송가가 바로 이 곡이었다. 또한 1960년 미국 보수계의 신앙잡지가 행한 전(全) 미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애창 찬송가를 조사한 결과도 역시 1위였고 2위와 격차를 매우 크게 두고 수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라디오 방송국에서 애창하는 노래를 적어 보내라고 하자 불신자와 신자들이 적어 보낸 모든 노래 중에서 이 성가곡이 단연 최고의 점수를 얻었다.

이 찬송의 작시(作詩) 및 작곡가는 버나드 목사이다. 그는 1873년 2월 4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영스타운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 어느 부흥집회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부친이 탄광에서 낙반사고로 사망하였다. 어머니와 네 누이의 유일한 부양책임자가 되어 그는 하고 싶은 신학을 공부하지 못하고 기회 있는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후에 결혼하고 신학교육을 받아 목사가 되어 부흥목사로 많은 일들을 했다. 그는 300편이 넘는 복음성가를 작시 작곡 했으나 “갈보리 산위에 이 한곡만 남아 그를 기억하게 하고있다.

이 곡은 그가 한 감리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던 어느날 목사관에서 이 성가의 작시작곡을 끝마치고 그 교회 담임목사 부부에게 이 성가를 들은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불멸의 찬송을 허락해 주셨군요. 다른 찬송을 통하여 받아본 일이 없는 큰 감동을 받았읍니다.”라고 찬탄하였다. 이 성가는 일사천리로 성도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마음깊이 흘러들어갔다. 그리하여 시카고의 대집회를 위시하여 어느 대집회든지 이 성가를 부르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였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풀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재판정을 떠나 갈보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아침 9시경에 깊이 파놓은 구덩이에 그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으며 한낮에 짙은 어둠이 해를 가리웠고 3시 이후 “예수의 영이 떠나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 되어있다(막15: 25, 15: 33~37)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는 벌써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본 일이 없으나 주님은 영원한 영적(靈的) 십자가를 심어 주셨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신21: 23, 갈31: 13)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시자는 십자가를 가리켜 “고통과 수치의 징표”라고 했다. 이런 무서운 죄의 상징인 십자가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양치 않으셨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 세상에 오신 것이었다.

이 성가는 국내에서도 누구나 할것없이 좋아하고 사랑 할것이다. 성악을 전공 하시는 분들도 이 성가를 한 번쯤은 성도들 앞에서 찬양드렸을 것이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람이 될 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 영광스래워질 것이다.

기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백 도선 권사

(장년 새신자부 교사)

7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큰 잔치라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가서 앞자리에 가 앉았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아이·어른 할 것 없이 물려드는데 더 이상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설교시간이 되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시더니 아이들은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도 작고 맨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쫓겨 날 것 같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때 내 머리를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어라” 저는 즉시 머리를 묻었지요. 다른 아이들은 다 쫓겨났어도 나는 쫓겨나지 않았습니

다. 부흥회가 시작된지 3일째 되는 밤에 “죄를 씻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씻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내 속에 살아 움직였습니다. 옛날 가난한 아이들은 1년 내내 몸을 씻지 않다가 여름 물놀이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옷소매를 들치고 팔을 보니 때가 잔뜩 있었습니다. 저는 용돈을 모아 이웃 아주머니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그 날 따라 목욕탕은 쉬는 날이라 목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여름 목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육신만 씻을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 또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십자가의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후 우리 가정은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집 주인딸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까까머리인데다가 옷도 잘 못 입었기 때문에 체면이 깎일까봐 교회로 데리고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나이가 어려서 교회까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교회갈 생각을 굶기지 않던 제게 주님은 어떤 분을 알게 하셔서 먼 교회지만 다니게 하셨습니다. 나를 까까중이라고 아이들이 놀릴땐 견딜 수 없었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자주 하다보니 소학교 입학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나는 학교 가고 싶어요. 꼭 보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10살되던 해였습니다. 우리집 옆에 저를 귀여워 해 주시던 일본제국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이 교제하던 소학교 여선생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서 소학교 2학년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6학년까지 줄곧 우등을 하였습니다. 서예와 미술에서는 일본 천황상까지 받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의 기도 첫 마디는 “주여!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입니다.

소학교에 입학한 때부터 동방요배, 신사참배도 많았습니다. 5학년 때에 몰래 숨어서 절을 하지 않은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야단났습니다. 저는 일본 교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교사회회에서 이 학생은 총명한 학생이니 제명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나만은 비밀리에 빠지도록 해 주었습니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숭의여학교 4년째 되는 해에 신사참배 문제가 심하여 폐교하게 되었고, 저는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볼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일꾼이 되게 하셔서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여생뿐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최 경 파

(중등부 교사)

아이야!

빛나는 별님처럼 반짝이는 눈동자와
발그레한 두 볼을 가진
나의 아이야!
나중에 나중에 넌 무엇이 되고 싶으니?
많은 이쁜 아이들은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아주 근사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하고 있잖니

아이야

넌 무엇이 되고 싶으니?

아이야

만일 내가 나에게
“제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하고 묻는다면 말이다.
난 착한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단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땀 뻘뻘 집으로 오려면
긴 쓸쓸한 지하도를 지나야 한단다.
그 지하도는
반짝이는 하모니카나
작은 바이올린을 가지고서
음악을 들려주는 거리의 악사들이 있단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성을 따지고 전문성을 말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일에 지친 나에게
영혼의 달콤한 자장가로 들려진단다.

물론 아이야

내가 네게 거리의 악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
란다.
다만
목적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 과정 중에 많은
아니 한사람이라도 너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런 어른……

많건 적건 지친 이웃에게 평안을주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에게 기쁨을 나누는
즐거움을 항상 간직한
멋진 어른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싶구나.

하지만 어떻게 그런 어른이……

아이야

지나온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런것을 배웠단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내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아이야

나의 고운 아이야
밝은 태양 아래서 자라거라.
기쁠때 소리쳐 웃을 줄 알고
넓은 벌판에서 힘껏 달릴 줄 아는 맑은 영혼을
간직한 채로
고이 자라거라.



모든 어려움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파르카칙의 추운 11월의 어느 날 아침에 저는 파니카르로 가는 1만 3천피트의 고갯길을 넘어 12km나 되는 험한 산 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평상시의 보통 걸음으로 오전 9시경에는 중간 지점쯤 되는 고갯길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쉬면서 기도하려고 멈춘 곳은 눈과 얼음이 두 겹게 깔려 있는 웅덩이였습니다. 아마도 눈 위에 있는 흔적과 발자국을 보아 간밤에 여우가 왔다 간 것 같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노래한 시편기자의 말씀이 그날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시편기자는 어떻게 이런 야수들의 생활을 예로 들었을까요? 고갯길을 내려오면서 저는 1983년을 통해 카르길과 모든 지역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축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1983년 6월에 보냈던 서신 이후로 저희는 두가지 큰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첫째는, 스리나갈에 있는 J & K 기독교 사역자 대회이고,

둘째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순회전도자 국제 대회(암스테르담 '83)입니다.

5 천여명의 참석자들이 회집했던 암스테르담 '83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었습니다.

카르길과 파카칙에서의 지난 여름과 가을의 사역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폴 부부와 바이어씨 그리고 허어만양을 방문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사역하는 지역을 촬영하여 영화로 편집 중이며 필름이 곧 제작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스리나갈에 있는 동안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이신 서만수 목사님께서 특별히 「1일 여행」으로 찾아 주셨습니다.

파르카칙에서의 지역발전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더욱 나아졌습니다. 아론 마릭씨는 베틀센터, 도서관, 청소년오락, 살충제 살포계획, 재활사업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감독하였는데 아론씨는 마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 티벳방언인 퓨리그어를 익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학식 있는 몇몇 스위스 성직자들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2년간 중단되었던 퓨리그어 신약성경 번역사업이 9월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친구인 팔림씨가 주 번역자이며 개종자이며 SIL에서 훈련받은 언어학자인 카를라 라드로프씨와 제가 이것의 1차 번역단계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놀랍고 감사한 일은 일본에서 온 미도리 와타나베양에 관한 것입니다. 미도리양은 저희들과 6개월 간을 함께 하며 수루멜리 공립학교에서 유치원 원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종이접기, 음악, 게임등의 재능으로 1982년에 저희가 설립했던 이 학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를라양은 많은 시간 동안 우르드어를 배우고 있으며 학교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곳 스리나갈에서 지방의 언어교사와 함께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녀는 우르드어와 쉬리니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카르길 팀에서의 질병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므로 6월에는 레호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론씨에게서 부터 시작된 병이 계속되어 8월에는 미도리양이 심한 다이아호르와 10월에는 카를씨가 간장염을 앓았습니다.

메에나양은 10월 25일에 심한 현기증과 허약증세로 카르길에서 하루동안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질병을 통해서도 그의 신실하심과 보살피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 소식은 안드레아스 스갑단이 1월 19

일로 첫 뉘를 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근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 외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는 봄까지 조그만 마을 진료 운영(의료진과 간호원을 위해 기도함).

2. 야채와 식물의 증산 촉진을 위한 시험재배 농장운영.

3. 6월경에 멜백의 선교관 착공.

4. 7-8월경 티벳어 성경 배포와 신약성경을 망카르어로 번역하는 일.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부 히말라야지역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함께 추수하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더욱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엘리아, 스네하라타와 앤디겔간 드림

(인도 선교사)

□교사수필□

만능열쇠

정 필 걸

영아부교사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어머니가 했지요.” “본인은요?” “글쎄요 지난번에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는 50% 짜리 기도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100% 응답 주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누구나 신자라면 기도를 하게된다.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의논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말에 더 깊은 동의를 한다. 그러기에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밤을 지새우면서도 기도하고 큰 소리나 방언으로나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서 좋지만 생활을 통해 살아 숨 쉬듯 계속하는 기도를 더 좋아하고 있다. 더구나 나의 흉악한 죄를 깨닫고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눈물이 나곤 했는데 기도를 다 마쳤을 땐 어찌나 가슴이 환해지고 눈에서는 빛이

나며 온 몸에 힘이 생기고 어찌나 새로와 지는지 마치 좋은 비누를 가지고 전신을 깨끗이 씻어 낸 것과도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생활과 흘리는 눈물은 언제라도 귀중한 것이 되고있다.

기도는 만능열쇠와도 같다. 죄 문제를 해결하여 회복 받는 열쇠요, 근심을 떨치고 질병을 이길 수 있으며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성령충만 받아 승리생활 하며 능력 있는 믿음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만능열쇠(MASTER KEY)인 것이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5~7)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

- 1월 16일자로 장년 71명과 어린이 6명이 결신하여 선교산하 오지개척지는 40개로 확장됨.
- 3월 6일 딸 삼보양의 결혼식이 거행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인도네시아 원주민 사역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며, 성령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풍성하도록.
- 선교사 내외분의 건강과 따님의 새 가정을 위하여.

애굽 (이준교 선교사)

- 2월 3일 자이툰 복음주의 교회를 방문하여 부슈라 아스아드 목사와 함께 자라이브 넘마주이 프로젝트에 관한 협의를 함.
- 2월 12일 기자 복음주의 교회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하여 설교하고 성찬예식을 거행함.

〈기도제목〉

- 애굽의 계절상 먼지와 바람이 불기 시작하므로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 및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 카이로 한인교회 및 현장예배, 포트사이드 가정교회와 애굽 선교를 위해.

벨지움 (김성완 선교사)

- 유럽 한인교역자 연합회에 참석하여 좋은 프로그램 및 귀한 교제와 유익한 시간을 가짐.
- 나토 사령부가 있는 몽스 지역에 국제가족 몇 가정이 기도회도 가지며 전화상으로도 연결 및 지원요청을 받음.

〈기도제목〉

- 교통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새 성도들을 위해 처음으로 렌트카를 실시하여 교회에 출석케 함. 이를 감사 드리며 더욱 더 많은 새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 자재의 교회당 구입과 재정적인 안정을 위하여.

서독 (육호기 선교사)

- 2월 18일(토) - 19일(주일) 까지 비스바덴 교회에서 “믿음위에 성가”의 주제 아래 제1회 성가대 수련회를 개최함.
- 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구역예배를 인도하며 각 구역장과 구역원들의 애로점을 모색함.
- 2월 23일 - 3월 3일까지 뷔츠브룩 교회의 춘계 대심방을 실시함.
- 2월 14일(화) 환약중인 차범근 집사 가정을 방문하여 신앙상담 및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

으며, 피아노 1대를 기증해주기로 약속함.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감사를 드림.

〈기도제목〉

- 건강과 영력을 위해
- 가족들을 위해
- 비스바덴, 하나우, 뷔츠브룩 세 한인교회를 위해.

칠레 (유재일 선교사)

- 칠레 어린이 주일학교 학부형반이 계속 부흥하여 28명으로 증가됨.

〈기도제목〉

- 선교사의 영적,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
- 칠레 한인교회의 모든 권속을 위해.

파라과이 (김재창 선교사)

- 2월 2일 - 3일 제1,2남·여선교회 수양회를 인도함.
- 2월 6일 - 9일까지 여름어린이 성경학교를 실시함.
- 2월 21일 제4기 한인 유치원 개원예배를 입학생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
- 2월중의 등록가정 7가정이며, 원주민 교회의 지원은 10개처임. 주님께 감사를 드림.

〈기도제목〉

- 교회의 부흥과 원주민 선교사업
업을 위해.
- 경제회복과 교회 증축을 위해.
-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
업을 위해.

일본 (유병세 선교사)

- 2월 11일-12일 십승지구의 메
노나이토교과 북해도지구 수련
회에 참석하여 저들의 이념과
칼빈주의에 관하여 많은 교제
를 나눔.
- 부인 성경반 계속 은혜 안에 인
도 중이며 병원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전도사업도 계속 진행
중임.
- 막내 아들 인구군 선교현지를
방문하여 한국교회의 대학생 신
앙 활동을 소개. 인구군의 선
교지 경험과 신앙성장에 감사
드립니다.

인도 (엘리아 겔간 선교사)

- '83년 7월 4일-8일까지 잠
무와 카시미르에서 전도사역에
힘쓰고 있는 사역자들이 스리
나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
고 기도하기 위해 기독교 사역
자 대회를 가짐.
- 7월 12일-21일까지 암스텔담
에서 순회 전도자 국제대회(암
스텔담 '83)에 참가함.
- 티벳의 방언인 퓨리그어 신약
성경 번역사업이 9월에 다시
시작됨.

〈기도제목〉

- 인도의 원주민 선교사역을 위
하여.
- 퓨리그어 신약성경 번역사업을
위해.
-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리성충현교회

- 라성충현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며
- 김 영회 목사의 목회와 학업을
위해

본부소식

- 2월 11일 주일학교 학생들의
문안편지를 각 선교지의 선교
사들께 발송함.
- 2월 19일 (주) O. M. F의 테니
스 레인 목사를 모시고 주일저
녁 예배를 드림.
- 2월 20일-21일 제 3회 충현
세계선교 세미나를 유년부실에서
테니스 레인 목사를 주강
사로 모시고 180여명의 선교실
행위원과 선교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함.
- 2월 29일 김창인 목사 설교집
"칭찬 받는 교회"를 각 선교지
마다 우송함.
- 3월 6일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의 딸 삼보양의 결혼 축
하로 본 선교회와 한나빛 에스
터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각각
선물과 카드를 발송함.
- 세계선교회 3월 정기 실행위
원회를 3부예배후 전도위원회
실에서 모였으며 화란의 클라
아스 호이정업 선교사 부부가
참석하여 신앙간증 및 소개를
함.

〈공동기도제목〉

- 모든 선교사의 사역에 하나님
의 크신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
며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
음 안에 한 형제가 되도록.
- 선교지 모든 교회들의 부흥과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 모든 선교사 내외분 및 그 가

족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 오지 개척사업 위에도 주님께
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많은 결
신자를 나타나도록.

알리는 말씀

충현교회 기단지 『월간충현』의 편집
과 제작의 책임을 맡아 일할 유급 편
집책임자를 구합니다. 신실한 신앙인
으로 충현교회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실무에 경험이 있는 분으로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일차 교회 기획조정실
홍보출판부로 문의바랍니다.

아울러 『월간충현』의 편집과 제작을
도와 취재·사진촬영·자료정리하는 일
에 무보수로 헌신봉사하실 일꾼을 기
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받은 은사대
로 이같은 일에 봉사하실 분의 많은지
원을 기다립니다. (월간충현 편집실)



교우동정

새교우

1 교구

제정자	홍석주	김갑동	함원경
신전수	강복순	김명자	서순석
김경자	이병옥	김경순	정활성
차재홍	강창성	김용길	양승길
이규분	김태희	정순영	이영옥

2 교구

최정금	김건우	오경모	석금숙
정순이	강기태	현순옥	박진수
유대심	박인숙	양재현	임경애
정순이			

3 교구

김명애	장기돈	김형복	박영자
홍송남	박천인	백한기	이영숙
함명순	고남식		

4 교구

김향숙	문경미	김용홍	김하주
조도비	한영길	박우덕	곽경옥
문순분	손미자	김영수	김장묵
박순영	홍석용		

5 교구

이향선	원태영	최숙명	탁신태
조철영	허재창		

6 교구

장준환	권근순	윤병조	박용수
박명호	강명수	주경식	최순영
황금연	손정옥	유길상	이동우
이경란			

7 교구

김광옥	오창수	김옥인	한수만
김효순	이혜숙	안종천	권익자

이봉자	원경옥	이영복	이창환
이시화	이은영	이명희	이종원
이은주	윤덕순	유정부	조상애
홍정희	엄광섭	이은구	박명희
황영숙	김인경	김수용	권경숙

8 교구

이홍	이희자	이정자	김해숙
윤석구	장태석	박진국	권오섭
이정식	심태섭	김성호	김정숙
장세용	나명숙	이영자	신은자

9 교구

박재관	배호남	위성자	조정옥
서수남	서영단	김애란	신영자
한정희	박은희	이수진	김선재
김경완	이윤준	임길영	박연숙
김성동	하상애	김정아	허헌주
이태규	김학천		

10 교구

박윤용	이영준	유기완	김인각
최성숙	김영환	한명하	김지현
강복순	서정희	고옥석	이대용
조규명	이치자	김명자	이경진
장화자	이양님	문성희	오양숙
고옥준	박순덕	유용옥	권용자
이형준	정순덕	이조용	

- 박선영양 3월 3일 춘천에서
- 송명건군과 김은혜양 3월 7일 본교회당
- 김기홍군과 김정희양 3월 10일 본교회당
- 이종호군과 최승옥양 3월 10일 본교회당
- 이경우군 3월 10일 정동제일 감리교회당
- 김형곤군과 박진숙양 3월 12일 본교회당
- 안동현군과 김문자양 3월 13일 수운회관
- 강만수군과 한연숙양 3월 17일 뉴코아에식장
- 김덕영군 3월 20일 목화예식장
- 손기동군과 김경애양 3월 21일 본교회당
- 이한주군과 김영희양 3월 31일 대구 서문교회당
- 김광현군과 정기선양 3월 31일 본교회당

• 별세

- 김이숙권사(월동 2 - 4 구역, 이창성장로부인) 3월 5일
- 조상엽권사(신당 5 - 2 구역) 3월 5일
- 김영일씨(신당 1 - 1 구역, 경연숙씨 아들) 3월 5일
- 박동엽씨(안소현권사 부군) 3월 20일
- 조정순(양충훈 전성자 집사 모친) 3월 22일

• 결혼

- 김인철군과 김성숙양 3월 1일 본교회당
- 김용태군과 임란향양 3월 1일 본교회당
- 안광식군과 전미혜양 3월 2일 본교회당

5월의 행사

□ 당 회

4일 / 정기당회

□ 제직회

6일 / 정기제직회

□ 기획조정실

20일 / 월간총현 발행

□ 구역권찰회

6일 / 교구간사협의회

20일 / 교구협의회의

27일 / 구역권찰회 월례회

□ 예배위원회

7일~10일 / 교회 부흥회

27일 / 교사헌신예배

□ 전도위원회

4월 30일~5월 4일 / 총동원전

도대원 훈련 협조 (구역권찰

회 협조)

5월 3일 (6월 28일까지) 제2기

70인 전도요원 훈련 시작

28일~30일 / 군목초청세미나

(기도원에서)

□ 북한선교위원회

14일~17일 / 거제도 차량전도

21일~25일 / 연합집회 (장소 :

전북 정주시 체육관)

□ 교육위원회

6일 / 어린이 주일

12일 / 경로회-대상 만 70세이

상, 청년부에서 봉사)

13일 / 아버지 주일-부모·교사

꽃 달아 드리기



송구하고 죄스러워 용서를 빌고 훈 마음뿐입니다. 정한 기간에 발간되지 못한 변을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은 기도의 달이었고 간절한 기도를 모으며 편집을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또 늦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성전시대를 열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해서 새성전 특집을 마련했고 나성 지교회로 부임하신 정상우 목사님과과의 대담을 통해 목사

님의 모든 것을 담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전국의 교회에 사과를 드릴일은 발행 부수의 제한으로 다 보내드리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새성전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좋은 편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족을 가슴에 안고 사는 총현의 성도가 되며 세제를 향한 선교의 장을 여는 새성전 시대의 성도가 되기 위해 새 옷을 입읍시다. (*)

표지의 말

새성전 시대를 연다.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부터 새성전시대는 열리고 있다.

우리시대에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난 4월 2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새성전에 모였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시대가 물러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정히 자신에게 반문해야 할 때이다. 『나의 심령 또한 새로워지고 있는가?』

월간총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편집위원

정 상 우	조 현 명
장 정 일	이 형 수
김 수 성	

월간 총현

1984년 3·4월호

제12권 제 3호 (통권 119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4년 4월 27일 인쇄

1984년 4월 28일 발행

발 행 인 / 김 창 인

편 집 인 / 최 석 주

주 간 / 이 성 근

홍보출판부장 / 김 광 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현 교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685-1

전화 / 562-4181~5

충현교회제 4대안수집사



강 봉 수



김 남 조



김 과 경



김 동 삼



김 상 규



김 상 덕



김 성 동



김 용 석



김 재 명



김 정 태



김 종 연



김 종 주



김 형 신



김 환 기



나 회 주



노 문 환



문 폐 인



설 관 호



양 종 섭



원 응 철



이 갑 새



이 성 원



이 새 기



이 태 송



이 형 수



암 기 재



임 정 우



진 남 일



진 새 룡



진 홍 렬



조 성 행



주 원 흡



최 환



한 현 일



현 홍 식



홍 주 영



주 열 호



황 영 일

□ 포토에세이 □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자주 기도할 수 있으며 더욱 훌륭하게 기도할 수 있다.

기도 속에 있는 큰 능력은 우리의 손이 닿는 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기도해야만 한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해 오지 않았다면 소동성의 멸망을 위하여 그와 같이 끈질기게 중재기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그 날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은 아니었다.

우리는 또 우리 주님께서 몸을 바치신 유월절 전의 가장 놀라운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바라 볼 수 있다.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며 비(雨)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했던 일련의 한 편이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기도의 인내는 기도를 효력있게 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스펠전의 경건과 기도중에서〉